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대한 이론적 고찰

Theoretical Review for The Development of Self-efficacy in Children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禹 希 姬

*Dept. of Home Management
Kwangju University
Instructor : Hee Jung Woo*

목 차

- | | |
|-------------------|------------------------|
| I. 서 언 | III.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
| II. 자기-효능감의 개념적 틀 | 1. 심리적·내적요인 |
| 1. 자기-효능감의 개념 | 2. 환경적 요인 |
| 2. 자기-효능감의 기능 | IV. 요약 및 제언 |
| 3. 자기-효능감 판단의 원천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self-efficacy and reviews recent research articles which are related to development of self-efficacy in children.

Self-efficacy means personal judgement about one's capability to organize his behavior in a specific situation. Perceived efficacy can have diverse effects on behavior, thought patterns and affective arousal.

People acquire their efficacy information from their performance accomplishments, vicarious experiences, verbal persuasion and their physiological states.

In this paper, I argue that two factors,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efficacy.

Specifically reward, attributional feedback, social comparison and goal setting are classified to psychological factor and hom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belong to environmental factor.

Since not many studies have been done in this area, in this paper I also suggest som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 서 언

많은 심리연구들은 아동이 주변세계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표상하며, 처리하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아동이 자신이나 타인의 성격 및 심리적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개념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Asher & Renshaw, 1981; Bandura, 1977b; Murray, 1972; Turner & Harris, 1984).

최근 몇년동안 심리적 기능화로서, 자기-참조적 사고(self-referent thought)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이론화가 여러 논제하에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행해져 왔는데, 그중에서도 인간 생활중에서 사건을 만들어 내고 규제하는데 대한 효능감에 연구가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다고 보겠다(Bandura, 1977b, 1982, 1986; Schunk, 1981, 1986; Wheeler & Ladd, 1982).

자기-효능감이란 Bandura(1977b)가 행동변화의 근간이 되는 인지적 법칙으로 설정한 이론적 구상물로서 Bandura(1977b, 1981)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상을 스스로 산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칭했다. 즉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요구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러한 자기-지각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위의 방향 뿐 아니라, 그들의 사고유형, 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아마도 자기-지식(self-knowledge)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보다 일상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개념은 없을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관점으로는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는데 자아개념은 대부분 전반적인 자기 이미지에 관련된 것으로 전반적인 자아개념은 다른 활동이나 같은 활동의 다른 수준, 혹은 다른환경에 따라 변하는 이미지의 복잡성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 혼합된 자아 이미지는 수행과 어느 정도는 온당한 상관을 산출하지만 수행에 대한 개인의 내적타당성을 정확하게 예언

하는 개념은 되지 못한다(Bandura, 1986).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로써 이것은 문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얼마나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행동이 개인의 가치 기준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가에 달려있는 반면 자기-효능감은 개인 능력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자기 가치에 대한 판단과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은 같은 관계는 아니다. 개인은 자부심 없이도 어떤 활동에 대해 자신이 매우 효능감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반면, 자기 가치의 손상없이도 특정 활동에 자신이 효능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과 구별되는 자기 참조적 사고의 다른 측면으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현상을 타나낸다(Bandura, 1986).

자기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연구 되어온 자아개념이나 자아 존중감과 같은 개념은 직접적 경험과 의미있는 타인으로 부터 나온 평가를 통해 형성된 자신에 대한 혼합된 관점으로 그 개념 정의가 총체적이며 애매모호하다는 지적(Harter, 1982)이다. 따라서 자기 평가에 대한 진일보된 개념으로서 자기-효능감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 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 분야의 축적된 연구 결과가 없는 상태이고 특히 국내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고,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형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해 봄으로써, 차후 우리 나라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코자 하는데 의의를 둔다.

II. 자기 효능감의 개념적 틀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아동이 환경을 다루는 능력은 틀에 박힌 활동이나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것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수한 목적 수행을 의한 행동의 통합된 과정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기술요소로 이루어진 상당한 능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과 환경의 교섭은 이

리한 조작 능력에 대한 판단, 즉, 자기-효능판단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Bandura(1977b)는 다양한 처지에 의해 발생하는 행동변화를 설명, 예언하기 위하여 인지적 관점의 하나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구상하였다. 그의 이론은 모든 형태의 심리학적 방법들을 개인적 효능에 대한 기대를 창조하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기본 가정에 근거한다. 그는 자기-효능감을 특정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의도하는 결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조직, 실행하는 능력에 관한 개인적 신념으로 정의했다. 즉 자기-효능감은 자기능력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성취장면에서의 개인의 기대를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와 효능기대(efficacy expectation)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는 확률 추정치이며, 후자는 그가 그러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정치이다. 따라서 전자는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 즉, 행위와 성과의 수반관계(contingency)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자신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또한 Schunk(1981)는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보았으며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 모호하고 예견할 수 없으며 긴장을 주는 요소가 포함된 구체적 상황(specific situation)에서 자신이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했다.

Wood 와 Locke(1987)는 자기효능감을 과제 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련의 구체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대한 자신능력의 개인적 측정(estimate)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볼때 자기 효능감이란 구체적 상황에서 목표수준의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데 대한 개인 능력의 판단 또는 기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2. 자기-효능감의 기능

일상생활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행위과정에 대하여 결정해야하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한 결정들은 부분적으로 개인의 효능감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수 있다. 먼저 자기-효능감 판단은 행위와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Bandura(1981)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상廻한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신이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이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은 기꺼이 선택하고 수행한다. 또한 행동에 투여되는 노력의 양과 장애나 행동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노력의 양과 지속성은 증가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갖는자들은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포기해 버리는 반면, 강한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한다(Brown & Inouye, 1978 ; Schunk, 1981 ; Bandura & Schunk, 1981).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판단은 환경내에서 예측하고 실제 수행하는 동안의 사고과정과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Bandura, 1981). 환경적 요구에 대처하는데 효능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자신을 부적절한자로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종종 있으며, 실제보다 잠재적인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Beck, 1976 ; Meichenbaum, 1977 ; Sarason, 1975). 또한 Bandura(1986)는 인식된 무력감은 높은 기대 불안과 성취불안을 일으켰으나 자기-효능감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안이 소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Langer(1979)역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능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버린 결과 자기-퇴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기-참조적 선입관은 자기 평가적 과업에 있어서 실패와 재난을 염려하여 혼란스런 각성 상태를 유발하고 수행을 그르치는 수가 있으나,

반대로 강한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환경적 요구에 자신의 기술을 잘 활용하고 많고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한다(Bandura, 1982)고 보겠다.

이와같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판단은 행위의 선택, 사고의 유형 및 정서적 반응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3. 자기-효능감 판단의 원천

Bandura(1982)에 의하면 자기-지식(self-knowledge)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중재된 경험에 의한 정보를 통해 획득되는데, 자신의 효능감에 대한 판단은 자기 수행의 결과, 타인의 수행 관찰에 의한 대리경험, 개인의 소유하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언어적 추가와 관련된 형태의 설득, 부분적으로 자신의 취약점과 유능한 점을 판단하는 심리적 각성상태등의 4가지 중요한 정보원에 기초하고 있다.

1) 자기 수행의 결과(Performance Accomplishment)

자기 수행은 확실한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능감 정보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근원이 된다(Bandura, 1977a).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성공은 자기-효능감 수준을 상승시키지만 거듭된 실패는 그 수준을 저하시킨다(Bandura, 1982). 즉 반복될 실패는 효능감을 낮추게 하는데 특히 그 실패가 사건 초기에 발생했거나 노력부족, 또는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반면 강한 효능감이 반복된 성공을 통해 발달된 후의 때로의 실패는 자신의 능력 판단에 그다지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지각된 효능감은 수행 결과가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의해서 뿐 아니라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에의 편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선택적으로 부정적인 쪽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것을 옳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2)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타인의 수행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 즉 자기-효능감 판단은

대리경험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

모델과의 유사성은 자신의 효능감에 대한 관련 요인으로서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효능감을 판단할 때 관찰자들은 과거 모델의 수행이나 문제에 대한 예측력등에서 모델과의 유사성에 의존한다. 비슷한 타인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봄으로써 관찰자는 자신도 그와같은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Bandura, 1977b). 또한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지녔다고 여겼던 자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을 보면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은 더 낮아지게 된다(Brown & Inouye, 1978).

대리경험이 비록 직접적인 경험보다 영향력은 약하다 할지라도 수행 효과를 통해 볼 때 자기-효능감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즉 자신의 무효능(inefficacy)을 대리경험을 통해 인지한 사람들은 비효율적으로 행동하게 되지만, 반대로 대리적으로 자기-효능감 상승해 영향을 주는 모델링은 반복된 실패에도 아랑곳 없이 지속적인 수행에 의해 직접적인 실패 경험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Brown & Inouye, 1978). 또 대리 경험은 환경 사상의 성질과 예언가능성에 대한 정보 즉 장면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책략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효능감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3)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언어적 설득만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힘은 한정되어 있지만, 설득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영향을 주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언어적 설득은 어떤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자신이 믿게끔 말해 주는 것으로 손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언어적 설득의 영향은 피 설득자기 설득자의 특성, 즉 신뢰성, 권위, 숙련성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설득의 정도는 성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게끔 할 것이며, 기술과 능력이 발달하게끔 할 것이다.

4)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자신의 신체적 상태 즉, 정서적 각성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즉 강압적이고 부담을 주는 상황은 정서적 흥분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정서적 흥분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하나의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 보다 안정되어 있을 때, 성공을 기대하게 되며 불안을 일으키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생각은 실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안보다 더욱 강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정서적 흥분에 의해 전달된 정보가 바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정을 통해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b).

이와같은 4가지 자기-효능감 지각에 대한 정보원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인지적 처리 과정을 통해 영향을 주는데, 효능감 판단에 있어서 관여하는 인지적 처리는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는 단서-지각된 능력, 과제난이도, 노력의 양, 외부 조력의 정도, 성·패의 유형등-와 효능감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데 쓰는 추론 규칙이나 발견적 학습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효능감 판단이란 개인적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가늠하고 결합하는 추론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Bandura, 1982).

III.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추구하는 행위의 방향 뿐 아니라 그의 사고유형 및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 시키고 증가 시키는데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자기 효능감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리적·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심리적·내적요인

1) 보상(Reward)

아동들은 자신의 수행에 관련된 보상을 받았을 때, 흥미가 지속 내지 증가된 반면 과제 수행과 무관한 보상을 받았을 때는 흥미가 감소된 경향이 있다(Boggiano & Ruble, 1979).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표가 되는 보상의 양이 많을수록 활동에 대한 흥미는 증가된다(Enxle & Ross, 1978).

보상이 단순히 과제참여에 관련되어 제시될 때도 활동에 대한 참여가 개인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흥미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Arnold, 1976).

Schunk(1984)도 과제성취에 관련된 보상을 받은 집단은 단순히 과제 수행에 참여 했다고 해서 보상을 받은 집단에 비해 성취도와 자기 효능 수준이 높았음을 보고함으로써 보상은 자기-효능감 평가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서 과업 성취를 증가시킨다는 Bandura(1981)의 견해를 뒷받침 하고 있다.

Bandura(1981)는 보상의 역할을 적절히 평가하려면 그것이 수행을 통제하기 위해 제시된 경우와 개인적 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시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과업 성취에 관련된 보상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자기-효능감은 과제 수행과정에서 증명된다.

아동 뿐 아니라 성인 역시 과제 수행을 위해 보상 받을 때 활동에의 흥미가 증가 되거나 지속 되며 증대한 능력을 행하기 위한 보상이 많을수록 흥미는 더 증가 된다. 흥미와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로서 Bandura와 Schunk(1981)는 목표향상을 통해 고양된 자기-효능감이 내적 흥미를 현저하게 높여줌을 발견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과제의 성취와 내적 흥미의 수준을 예견함을 밝혀 내었다. 또 Liesveld(1988)는 읽기과제의 흥미, 어휘난이도, 활자크기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연구하여 흥미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주 효과를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흥미의 증가는

효능감의 증가를 촉진 시킬 수 있으므로 보상은 효능감에 관련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2) 귀인 피드백(Atributional Feedback)

귀인이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인 이론에 따르면(Weiner, 1980) 자신의 수행 결과를 능력, 과업 난이도, 노력, 운 등의 네 가지 원인에 귀인 한다. 이 네가지 원인 중에서도 노력은 내적인 차원의 것으로 스스로 통제 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까닭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Weiner, 1980; Schunk, 1982). 즉, 과거의 실패를 노력에 귀인하면 과제에 대한 동기가 증가된다고 가정하고 있다(Schunk, 1982).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때 과제를 좀 더 지속적으로 수행 할 뿐 아니라 성취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Schunk(1982)는 노력을 하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성취도가 향상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연구(1984)에서는 노력이 성과에 관련된 방식에 따라 매우 상이한 효능 정보를 제공 한다고 밝혔다. 즉 과거의 성공이 노력 때문이라는 정보 제공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증가 시키지만 장래의 성공을 노력에 관련지우면, 현재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정보가 전달되어 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되므로 자기-효능감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들을 분석해 볼때 귀인피드백의 적절한 제공은 자기-효능감 증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효능감 판단에는 노력 정보가 능력 정보 보다 더 중요해지므로(Nicholls, 1978) 연령 증가에 따라 귀인 피드백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이에 맞는 귀인 피드백을 제공 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3)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ion)

사회적 비교란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비교하는 과정(Festinger, 1954)으로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타인(특히 친구, 동류아동, 이상적 인물)의 행동과 비교하여 판단하기도 한다.

발달과 더불어 아동은 점차 비교적 효능감 정보의 분별력이 증가하는데 아동은 자신의 효능감을 판단하기 위해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 보다는 유사한 사람들의 행동을 더 자주 이용한다. 자신의 유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성인은 흔히 자신의 성취결과를 다른 성인의 것과 비교하는 한편, 아동은 다른 아동(성, 나이 등이 유사한 아동)의 것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Bandura, 1981).

사회적 비교정보를 통한 자신의 효능감 평가는 직접적 경험에 기초한 자기평가보다 더 복잡하다. 많은 아동들이 부적절한 사회적 비교 때문에 또 개인적 한계로 인한 수행상의 잦은 어려움 때문에 지각된 무효능감에 의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제한된 경험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은 효능감을 해치고 또 만일 그 행동이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면 상처를 입게 되므로(Bandura, 1982)부모들은 그러한 결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어떤 대상이 적절하고 비현실적인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자녀의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비교정보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목표설정(Goal Setting)

목표설정이란 현재의 수행을 목표에 비추어 비교하는 과정(Bandura, 1977b)으로서 사람들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경험하는 자기 만족에서 자기유인(self-incentives)을 창출하고 그 결과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 목표는 집중을 하게 하고 노력을 하면 인내를 증가시키고 전략발전을 동기화함으로써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목표로는 명세목표, 근접목표, 원격목표의 세가지를 들수 있는데, 명세목표는 일반목표에 비해 동기를 증가시키고 자기-평가적 반응을 활성화시키며(Locke, Cartledge & Knerr, 1981)과업 성취에 필요한 노력의 양을 명세화 시키고 진보를 보다 쉽게 측정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과업수행을 촉진한다(Bandura, 1977b).

다음으로 즉각적인 유인과 행위의 지침을 제공해주는 근접목표(proximal goal)역시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한 매개물로서 제공된다.

근접목표는 명백한 표준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표준을 달성할 때 경험하는 만족도에서 내재적인 흥미를 가져다준다(Locke, et al., 1981).

아동은 근접 목표하에서 재빨리 자기-참조적 학습을 진보시키고 자기-효능감과 과업에의 흥미를 발달시킨다. 따라서 과업에 대한 근접목표 설정으로 어려움에 대한 지각을 없애고 성취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과업수행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 발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원격목표(distal goal)는 현재의 수행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표준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수행상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내재적 흥미나 자기-효능감이 발달되지 못한다.

2. 환경적 요인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검토한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기본적인 것이고 또 그것을 유리하게 해준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경험은 개인적 효능감의 발달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 주는데, 자기-효능감은 한 시기에 갑자기 혹은 전무 형식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더불어 진보적으로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Bandura, 1982).

인간은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발달하기 때문에 환경은 인간의 행동특성의 변화 범위와 종류를 결정할 만큼의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생애중에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아-아동기때의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가정 환경과 학교환경, 사회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가정 환경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1차적이고 점진적인 환경은 가정환경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있어서 부모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의 영향력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 부모-자녀 관계

아동의 최초의 효능감은 가족내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부모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원으로 역할을 한다.

모든 면에서 의존적인 유아들은 대부분의 만족을 성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의사소통 행동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풍부한 신체적 환경들을 제공하며, 탐구를 위해 아동의 이동을 자유로이 허락하는 부모의 유아들은 비교적 그들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이 가속화 된다(Cohen & Beckwith, 1979; Yarrow, Rubenstein, Pedersen & Jankowski, 1972).

자녀의 잠재적 위험을 너무 염려하거나 깊이 생각하는 과보호적 부모는 자녀들의 능력 발달을 손상시키는 반면(Levy, 1943), Mistry(1960)는 부모의 정서적 보호가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Rosenberg(1973)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 했을때 자녀들의 자존감 수준은 낮았음을 지적했다.

그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능력과의 관계를 조사한 많은 연구(Baumrind & Black, 1967; MacCoby, 1980; Turner & Harris, 1984)로 미루어 부모는 아동 자신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여겨지며 아동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상, 귀인피드백, 목표설정등도 부모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 형제관계

가족내에서 최초의 비교대상은 형제 자매라 할 수 있다.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를 관련지어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그러나 형제 유무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Baskett & Johnson, 1982; Falbo & Polit, 1987)와 형제수, 터울, 성분표, 출생순위등과 아동의 지적 능력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Zajonc & Markus; 1975) 결과들은 형제관계가 아동의 자기 효능감 발달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측하게 한다. 또한 아동기에 있어서 형제자매를

어머니와 아버지 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존중원천으로서 예증한 Kirchner 와 Vondracek(1975)의 연구결과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형제자매를 들고 있다. 따라서 자기 능력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형제의 수, 터울, 성분포 및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조사하는 일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2) 학교환경

아동의 중요한 인격 형성 시기에 학교는 인지적 효능감의 사회적 유효성과 신장을 위해 기본적인 기관으로서 기능한다. 그곳에서 인지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지식과 문제 해결 기술을 획득케 된다.

지식과 사고기술이 학교에서 끊임없이 시험되고 평가되며 사회적으로 비교되는데, 많은 비평가들은 학교가 그들의 목적을 이행하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학교 실습에 대해 준비성 없고 적성에 맞지 않는 실습으로 인한 교육적 경험이 자기-효능감을 자주 훼손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전달되어 지는 지식, 기술 뿐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인지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andura, 1982).

Brophy(1983)에 의하면 아동은 교사의 기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교사의 효능감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아동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Gibson & Dembo, 1984)와 그의 교사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Cooper & Good, 1979)등은 앞으로 아동의 효능감 형성에 교사의 영향력도 연구해야할 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사회환경

아동이 처한 사회환경으로 동료관계에 대한 관련 문헌을 고찰한 결과 Bandura(1982)에 의하면 아동은 사회적 세계가 확장됨에 따라 동료들이 효능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경험이 많고 능력을 지닌 동료일수록 효율적인 행동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연구는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기-지각이 동료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상호 개인적 행동에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Asher & Renshaw, 1981 ; Gottman, Gonso & Rassmussen, 1975) 이에 Wheeler 와 Ladd(1982)에 의해 동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아동의 자기-효능감 척도가 개발되어 설득적 기술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동료관계에 의해서 효능감 발달의 방향과 부분적으로는 동료선택과 행위의 선택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동료가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 요소로 작용함(Bandura, 1982)을 생각할때, 관련 연구주제는 자기-지각 획득에 있어서 나쁜 동료관계의 영향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IV. 요약 및 제언

지금까지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제시하였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아동의 자기 효능감 형성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 보았다.

자기-효능감이란 Bandura(1977b)가 행동변화의 근간이 되는 인지적 법칙으로 설정한 이론적 구상물로서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요구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능력에 대한 기대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추구하는 행위의 방향뿐아니라 사고유형 및 정서적 반응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수행의 결과,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 네가지 중요한 원천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자기-효능감에 대한 판단을 하게되는데(Bandura, 1982), 이와같은 자기-효능감 판단에 대한 정보가 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야말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심히 과대평가한 사람은 능력 이상의 활동을 하게되어 결과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쓸데 없는 실패로 고통받게 된다.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를 자아낼 수도 있다. 반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사람도 손해를 보는데, 그들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잠재성 개발에 유익한 환경과 활동들을 회피하고 잠재적으로 보상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단절 시키며 심한 자기-의심을 가지고 과업에 접근함으로써 자기의 부족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고민을 하게 되어 효과적인 수행을 그르치게 한다. 따라서 정확한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실제적인 수행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리적·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심리적 내적요인으로는 보상, 귀인피드백, 사회적 비교, 목표설정 등이 자기-효능감 발달과 관련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보상은 과제 수행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켜주며, 또 흥미의 증가는 자기-효능감의 증가를 촉진시켜준다는 연구결과들(Bandura, 1982; Liesveld, 1988)은 보상은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보상의 방법과 보상의 정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리라 본다.

또 귀인피드백도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능하는데, 실제 귀인피드백을 주는 방식에 의해 자기-효능감 수준이 달라진다(Schunk, 1984)는 점을 고려할때 연령에 맞는 귀인피드백 제공이 필요하리라 보며 귀인피드백의 효과 검증도 아울러 요구 된다.

사회적 비교역시 자기-효능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많은 아동들이 부적절한 사회적 비교와 제한된 경험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을 해치고 상처를 입을 수 있음(Bandura, 1982)을 생각할 때 아동에게 적절한 사회적 비교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목표설정은 현재의 수행을 목표에 비추어 비교하는 과정으로서 과업수행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환경적요인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는데 먼저 가정환경의 영향력은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동의 최초의 효능감은 가족내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가족중에서도 부모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내적 요인들도 부모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으며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능력이나 자아개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Maccoby, 1980; Turner & Harris, 1984)도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가 앞으로 요망되어지며 이와 더 불어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양육법과 효율적인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학교환경에 대한 영향력은 학교환경과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Brophy, 1983; Gibson & Dembo, 198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학동기가 되면 아동은 가정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므로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대한 교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교수방법, 교사 자신의 효능감 발달, 학생과의 상호작용 방법들이 연구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중에 사회환경 요인중에 사회환경으로 동료관계에 대한 연구들(Bandura, 1982; Wheeler & Ladd, 1982)이 이루어져 왔는데 동료역시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이 밝혀 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헌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 이 분야의 축적된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이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나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세째 : 아동의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이 행동 영역별로 필요하다.

네째 : 아동의 자기 효능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교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보상이나 귀인피드백등의 효과적인 제공 방법 모색과 이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Arnold, H.J.(1976). Effects of performance feedback and extrinsic reward upon highintrinsic motiv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7, 275-288.
- 2) Asher, S.R. & Renshaw, P.D.(1981). Children without friends : Social knowledgeand social skill training. In S.R. Asher & J.M. Gottman(Ed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 Bandura, A., Adams, N.E. & Beyer, J.(1977). Cognitive process mediating behavioral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125-139.
- 4) Bandura, A.(1977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5) Bandura, A.(1977b).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6) Bandura, A.(1981). Self-referent thought : A developmental analysis ofself-efficacy. In J.H. Flavell & L. Ross(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7)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8)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IVJ : Prentica-Hall.
- 9) Bandura, A. & Schunk, D.H.(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598.
- 10) Baskett, L.M. & Johnson, S.M.(1982). The young child's interactions with parents versus siblins : A behavior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3, 643-650.
- 11) Baumrind, D. & Black, A.E.(1967). Socialization practices associated with di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38, 291-327.
- 12) Beck, A.T.(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13) Boggiano, A.K. & Ruble, D.N.(1979). Competence and the overjustification effect :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462-1468.
- 14) Brophy, J.(1983). Conceptualizing student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18, 200-215.
- 15) Brown, I. Jr. & Inouye, D.K.(1978). Learned helplessness through modeling : The role of perceived similarity in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00-908.
- 16) Cohen, S.E. & Beckwith, L.(1979). Preterm infant interaction with the caregiver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competence at age two. *Child Development* 50, 767-776.
- 17) Enxle, M.E. & Ross, J.M.(1978). Increasing and decreasing intrinsic interest withcontingent rewards : A test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588-597.
- 18) Festinger, L.(1954). A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19) Flabo, T. & Polit, D.F.(1987). An only child and personality development :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09-325.
- 20) Gibson, S. & Dembo, M.H.(1984). Teacher efficacy : A constructive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569-582.
- 21) Gottman, J., Gonso, J. & Rassmussen, B.(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22)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s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87-97.
- 23) Kirchner, E.P. & Vondracek, S.I.(1975). Perceived sources of esteem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6, 167-179.
- 24) Langer, E.J.(1979). The illusion of incompetence. In L. C. Permuter & R.A. Monty(Eds.), *Choice and perceived control*. Hillsdale, N.J. : Erlbaun.
- 25) Levy, D.M.(1943). *Maternal overprotec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26) Locke, E.A., Cartledge, N. & Knerr, C.S.(1981).

- Stud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goal-setting and performa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5, 135-158.
- 27) Liesveld, C.M.(1988). The Influence of interest, vocabulary difficulty and print size on the situation-specific reading self-efficacy of high achieving and low achieving hig school readers. Ph. DUniversity of Nebraska.
- 28) Maccoby, E.E.(1980).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29) Meichenbaun, D.(1977). Cognitive-behavior modification : An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 Plemun Press.
- 30) Murray, F.B.(1972). Acquisition of conservation through social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6, 1-6.
- 31) Nicholls, J.G.(1978). Development of perception of own attainment and causal attribution for success and failure in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94-99.
- 32) Rosenberg, M.(1973). Which significant others. *American Behaviral Scientist* 16, 829-860.
- 33) Sarason, I.G.(1975). Anxiety and self-preoccupation. In I.G. Sarason & C.D. Spielberger(Eds.), Stress and anxiety(Vol. 2). Washington, D.C. : Hemisphere.
- 34) Schunk, D.H.(1981). Modeling and attibutional effects on children's achievement ;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93-105.
- 35) Schunk, D.H.(1982). Effects of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on children's perceived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4, 548-556.
- 36) Schunk, D.H.(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1, 48-58.
- 37) Schunk, D.H.(1986). Strategy training and attributional feedback with learning disabled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 201-209.
- 38) Turner, P.H. & Harris, M.B.(1984). Parental attitudes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44, 105-113.
- 39) Weiner, B.(1980). Human motivation.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40) Wheeler, V.A. & Ladd, G.W.(1982). Assessment of Children's self-efficacy for social Interations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795-805.
- 41) Wood, R.E. & Locke, E.A.(1987).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and grade goals to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7, 1013-1024.
- 42) Yarrow, L.J., Rubenstein, J.L., Pedersen, F.A. & Jankowski, J.J.(1972). Dimensions of early stimulation and their differential effects on infant development. *Merrill-Palmer Quarterly* 18, 205-218.
- 43) Zajonc, R.B. & Markus, G.B.(1975). Birth order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82, 74-88.